

# 2 월의 안테나

노 영 한  
(본지 편집국장)

## 통금 해제와 중·고생 교복 철폐가 의미하는 것

년초에 정부는 해안선과 휴전선 부근 등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일원의 야간통행 금지를 전면 해제하였다.

또한 중고생의 교복도 자율화시키는 동시에 삭발의무 규정을 없애고 머리 모양의 자율화도 단행하였다. 각계에서는 획일주의 보다는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조치로 이를 환영하고 있다. 80년도에 우리 분야에서도 배합사료 가격이 자율화되는 과정에서 찬반의 논란이 많았지만 사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오늘에 와서는 자율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자율화 조치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아직도 일부공장에서는 가격 통제 시절을 그리워 한다는 말도 있으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기업가는 없을 줄로 생각된다. 양계분야에서도 자유업보다는 신고제, 신고제보다는 등록제, 등록제 보다는 허가제를 양계인 스스로 원한 적이 있었다.

스스로 규제에 얽매이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유보하기를 즐겨하였다. 자본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시장을 놓고 경쟁하기를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열심히 노력한 데에 대한 댓가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는 창의력과 개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획일화, 평준화 시킴으로써 우선 보기는 좋은것 같으나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가장 큰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20년전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소련은 앞으로 20년 후엔 경제면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아무 곳에 가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우유나 주스 등 원하는 음료수가 무료로 줄줄 나오며



슈퍼마켓에 가면 원하는 고기와 야채를 무료로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는 지상낙원이 온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소련은 기본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의 식료품 가게 앞의 장사진이 행동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각종규제와 획일화는 필연적으로 무사안일에 빠지게 하고 무사안일이야 말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한 회사의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아무런 재량권도 주지 않고 사사건건 지시하는 일만 하도록 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창의력 발휘를 요구한다면 이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량권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도 게으르거나 무사안일에 빠진다면 이것 또한 최악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잇을만 하면 신문에 거론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에게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화보다는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운, 너무 쉽게 편안히 사업을 하려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치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업계의 자율성은 박탈하고 발생하는 문제

의 책임을 업계에 추궁하는 해피한 부조리는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 양계업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유 경쟁체제에 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품을 고급화 하는데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율화 시대에 맞는 양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82년이 되기를 바란다.

**도입 옥수수**  
**안정기준가격 160\$로**  
 (국산 옥수수 때문에 실질혜택은  
 당분간 적어)

농수산부는 지난달 18일 도입옥수수의 공급가격을 t당 180\$에서 160\$로 하향조정하였다. 지난 12월 17일 195\$에서 180\$로 조정된지 1달 만에 다시 160\$로 조정된 것이다.

이번 인하로 1달 만에 옥수수가 t당 35\$이나 값이 낮아졌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kg당 24,500원이나 값이 싸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지난번 인하로 축협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공장들이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이번 조치에는 소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번에 도입옥수수 가격은 인하되었지만 국산옥수수를 사료용으로 41,000여톤 인수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산옥수수와 도입옥수수 간의 가격차액을 안정기금에서 보전하여 주었으나 금년에는 각 사료공장에서 원가로 흡수해야 한다. 국산옥수수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kg당 270원 정도로 도입옥수수 가격의 배가 넘기 때문에 그 차액이 5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료공장에 따라 국산옥수수 사용기간을 정하기에 따라 배합사료가격 인하폭이 결정된다. 국산 옥수수를 2~3개월정도로 짧은 기간 사용하고 그후에 큰폭으로 값을 인하하던가 또는 6~1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가격을 인하하는 등 각 회사마다 다르겠으나 항상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눈치작전 후에 다른 공장들의 결정폭을 보아가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밀부산물(소맥피) 가격도 곧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여건으로 양축가들이 기대하는 폭으로 인하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료 협회에서 조사한 옥수수 안정기준 가격 인하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추정은 평균 1.5%의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되었는데(사료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옥수수를 많이 사용하고 강피류를 적게 사용하는 양계 사료의 경우는 인상 폭이 약간 더 클 수도 있다.) 이 가격은 국산 옥수수 사용을 년중 평균사용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정된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다음은 KFA(한국사료협회)가 추정한 인하 요인이다.

### 옥수수 안정기준가격 인하와 배합사료가격 추정

#### 1. 배합사료가격 조정 요인

- ① 기준가격인하 : M/T당 \$20(180\$-160\$)
- ② 국산옥수수보전 : 안정기준인하조정 (원가반영)
- ③ 강피류(소맥피, 맥강) 가격인상 : 14%
- ④ 도입원료 관세, 인상 반영

#### 2. 원료별 인상(하) 요인 비교

원료명	비율	비고
옥수수	△ 2.5	△ 인하요인
수수	0.1	
소맥피	0.6	
맥강	0.1	
대두박	0.2	
계	△ 1.5%	

#### 3. 원가계산 내역

구분	단가	금액	
		현행	조정
원료비		142,796	140,040
포장비	4,500	4,500	4,500
		147,296	144,700
감량	1%	1,472	1,447
		148,768	145,985
의제매입		△8,011	△7,678
		140,757	138,307

제조경비	25,000	25,000	25,000
이윤	4%	165,757	163,307
부가세		6,630	6,532
판매가격		172,387	169,839
가격비교		17,238	16,984
		189,626	186,823
		100	98.5

인하요인 1.5% (2,803원, \$3.89)

82.1.1부터 시행되는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율 조정은 다음 표와 같다.

품명	82.1.1이후	82.1.1이전
옥수수	2%	0%
타피오카	4%	0~20%
어분	6%	5%
대두박		3.4%
채종박		3.4%
육골분		5%
우지	7%할당관세	20%



#### 4. 원료비 산출내역

원료명	29개 품목 평균배합비	단가		금액		산출내역
		현행	조정	현행	조정	
옥수수	50	141,883	132,597	70,941	66,298	* 옥수수 조정단가 산출내역 가. 관세부가액 : 2,032원 (\$140×1,008×2%×720) 나. 국산옥수수 자체반영 3,082원 [(267,650- *129,515)×2.23%] (*현행가격 \$20 *관세액) ∴ 인상요인 소계 5,114원 다. 인하요인 \$20×720=14,400원 라. 조정단가산출 : -14,400+5,114=△ 9,286 ∴ 141,883-14,400+5,114=132,597 *수수 조정단가 가. 관세부가액 \$140×1,008×2%×720=2,032원 나. 단가산출 110,349×2,032=112,381 *소맥피 및 맥강(현행가격×1.14) *대두박(채종박감안) 가. 현행 : \$265×1,008×3.4%×720=6,539 나. 조정 : ① \$265×1,008×6%×720×24%=2,770 ② \$265×1,008×5%×720×76%=7,308
수수	10.6	110,349	112,381	11,696	11,912	
소맥피	11.5	73,000	83,220	8,395	9,570	
맥강	1.1	69,000	78,660	759	865	
탈지강	5.9	120,000	120,000	7,080	7,080	
대두박	11	211,208	214,747	23,232	23,622	
채종박	1	160,000	160,000	1,600	1,600	
기타박류	1.5	190,000	190,000	2,850	2,850	
어분	2.8	400,000	400,000	11,200	11,200	
인산칼슘	0.6	268,000	268,000	1,608	1,608	
석회석	3.5	17,000	17,000	595	595	
요소	0.1	240,000	240,000	240	240	
첨가제	0.4	650,000	650,000	2,600	2,600	
계	100	-	142,796	140,040		

## 82년 부터는 기록 철저히 해야

양계업계에 있어서 불안한 해에서 가능성의 새해를 맞은지 1달이 지나갔다.

부로일러 값이 오르고 계란값도 소폭이나마 상승되어 양계업자들의 심기 일진을 위해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몇해전 부터 산란계는 으레 한두차례 환우를 시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들 산란계들은 뼈를 깎는 환우의 고통을 이기고 나면 다시 크고 훌륭한 특란을 산란한다.

환우기간은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며 절식도 한다.

또 많은 동료 닭들이 이 기간동안에 죽거나 도태되어 버린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닭만이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가벼운 체중으로 다시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양계업계에 있어서 81년은(특히 채란업계) 환우의 해이었다.

양적으로만 과잉 성장한 업계가 군살을 빼고 낭비를 없애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해보는 해이었다.

새로운 기분으로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는 해이었으며 이 기간중에 약하고 병든 동료들이 부도라는 이름으로 폐사 또는 도태 되었다.

닭의 해에(신유년) 이루어 졌다는데 더욱 뜻이 있는것 같다. 환우한 닭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과 같이 새해부터 양계인들



이 쪽 지켜야할 것들이 있는데 첫째, 철저한 기록이 필요하다.

금년도 사업분 부터는 소득발생 5년이 지난 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업자도 50% 밖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실사를 받기위한 기장이 필요하다.

현행세법으로도 외형이 6천만원 이상은 간이기장 의무자가 되며 2억원 이상은 복식기장 의무자로서 양계산업은 특히 외형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기장 의무자가 되리라고 본다. 또 그 어느때 보다도 양계산물의 국제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므로 세금을 떠나서도 기장은 꼭 필요하다. 철저한 기록없이 경제적인 사료를 구입할수 없고, 기록없이 문제의 원인을 찾을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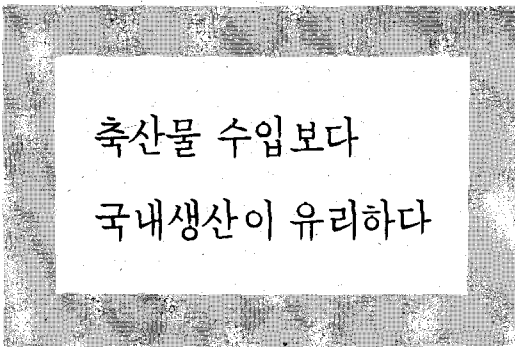
둘째, 양계산업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오는 불황과 년중 계절별로 오는 가격의 진폭에 따른 위험 부담을 생산자 혼자 전담함으로써 불안한 산업으로 유지되

어 왔기에 발전을 하지 못하여 왔다.

계열화 등으로 생산자들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계열주체 회사들이 상품을 고급화하고 값을 저렴하게 하여 새로운 소비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1,600\$을 넘어 섰는데도 국민 1인당 닭고기는 2.4kg, 계란을 120개 정도밖에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선 양계업자들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해서 이를 수출해서 번돈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수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으로, 이를 농산물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서 한때 값이 비싸면 수입하고, 모자라면 수입한다는 정책 때문에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계란까지도 수입된 적이 있었다.

흔히 물가 당국이나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축산을 하는 것 보다는 사료수입할 돈으로 축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수가 있었다.

사료원료 도입이 1979년 3,067천M/T에 5억불을 넘자 이런 소리를 깊은 연구도 없이 하게 되었다.

한국사료 협회는 사료 수입의 안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그 연구결과를 지난 1월 13일 한국 영양사료 연구회 세미나에서 권 배 전무가

소개하였는데, 이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몇가지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소개코저 한다.

○우리나라의 사료공업은 연간 5억\$ 이상의 원료를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원료로 배합사료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해외 의존은 식량의 무기화 추세에 비추어 원료 공급에 불안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요청되는 우리 현실로는 사료공급의 안정화는 절대적이며 따라서 원료 수입에서 제조공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사료를 수입할 금액으로 직접 축산물을 수입할수 있는 양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와 달걀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2.6배의 더 많은 양을 국내에서 생산할수 있으며 분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배합사료 공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배합사료 자체의 1단위 생산증가는 타산업으로 하여금 1.51단위의 생산을 증대할수 있어 2.51단위의 생산을 증대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생산효과가 발생되어 그 금액에 해당되는 생산보다 2.5배 이상의 생산을 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료산업 발전은 양계산업이 주도하여 왔으며 지금도 전체 배합사료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위의 연구 결과로 보면 브로일러 산업의 경우 특히 국내생산이 월등히 유리하며 채란계의 경우는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계산업도 사료산업의 발전 외에 기계·기

년도말 가축보유두수

(단위 : 1,000마리)

구분	소			돼지	닭		
	비육우	유우	계		산란계	육용계	계
1981	1,926.5	191.7	2,118.2	2,242.9	28,668	21,311	49,979
1986	2,243.8	265.7	2,509.5	2,667.3	34,647	26,645	61,292
1991	2,508.7	348.2	2,856.9	3,052.1	40,364	32,045	72,409



구, 동물약품은 물론 계사 건축에 따른 시멘트, 스텝트, 목재, 단열재,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우기 최근 산업의 총아로 불리는 전자산업의 양계산업에 응용이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 농장에서는 컴퓨터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SPF농장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의 발전은 양계 그 자체 보다도 타산업에 기여하는 공로는 지대할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80년말 축산진흥회의 용역에 의하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연구한 축산물 비교우위 분석과 수출입정책(허신행)에서 연구결과가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잘살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국제비교우위성이 없는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정책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공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식량도 자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축산물에 대한 수입정책이 재고 되었거나 되었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연구 보고서가 추정한 가축 두수 및 배합사료 수요 추정량을 보면 표와 같다.

사료소요량 추정 (단위 : 1,000M/T)

구분	1986		1991	
	농후사료	배합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비육우용	1,907.2	801.0	2,382.3	1,239.3
유우용	797.1	757.2	1,044.6	1,044.6
축우용계	2,704.3	1,558.2	3,426.9	2,383.9
양돈용	1,867.1	1,493.7	2,136.5	2,136.5
산란계용	2,425.3	2,425.3	2,825.5	2,825.5
육용계용	666.1	666.1	801.1	801.1
양계용계	3,091.4	3,091.4	3,626.6	3,626.6
합계	7,662.8	6,143.3	9,190.0	8,047.0